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
<청동기시대 고인돌 암각화 체험 키트> 안내서



신라시대
백제시대
고구려시대
고대사





" 질문하는 세계유산,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

고창문화예술배움터 X 세계유산

그래스너트 예술학교

세계유산과 오늘의 삶을 잇는 배움터

고창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래스너트예술학교'는 고창군의 7가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기반으로, 함께 배우고 창작하며 치유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예술교육 배움터입니다.

왜 '그래스너트예술학교' 일까요?

'그래스너트'는 앞선 경험과 질문이 새로운 실천으로 이어지는 접속의 말입니다. '그래스너트예술학교'는 세계유산을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아있는 배움으로 탐구합니다.

치유와 공존의 문화예술교육

'그래스너트예술학교'는 세계유산을 배우고 즐기는 것을 넘어, 세대와 세대, 사람과 자연, 지역과 세계를 잇는 치유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합니다. 여러분도 그 배움의 여정을 함께해요!

청동기시대, 금속으로 세상을 바꾸다

인류의 역사는 도구의 재료에 따라 구석기 → 신석기 → 청동기 → 철기시대로 이어집니다. 그중 청동기시대 (기원전 15세기 ~ 기원전 4세기) 는 인간이 금속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금속의 사용은 단순히 '새로운 재료의 등장'을 넘어, 사회 구조, 예술 표현, 신앙까지 삶의 방식 전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생각하기



금속을 처음 본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만약 내가 청동기시대에 산다면, 금속으로 어떤 도구를 만들고 싶을까요?

금속이라는 새로운 재료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청동기시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농경생활을 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갔고, 하늘·땅·사람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생활 방식뿐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바꾸어 놓았고, 그 상징 중 하나가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공동체가 기억을 모으고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장소, 즉 산 자의 믿음과 죽은 이의 흔적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고인돌 만들기



벼농사 짓기

청동기시대의 물건들, 손으로 만든 기술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손’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흙을 빚어 만든 민무늬토기, 돌을 갈아 만든 반달돌칼과 돌도끼, 그리고 청동을 녹여 청동검·청동방울·거울과 같은 도구들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도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직접 고안해낸 기술이었습니다.



토기

흙을 빚어 형태를 만든 뒤 불에 구워 단단하게 만든 생활용 토기



몸자귀와 돌도끼



반달돌칼

돌을 갈아 만든 반달 모양의 칼로, 벼를 수확할 때 사용한 농경 도구



청동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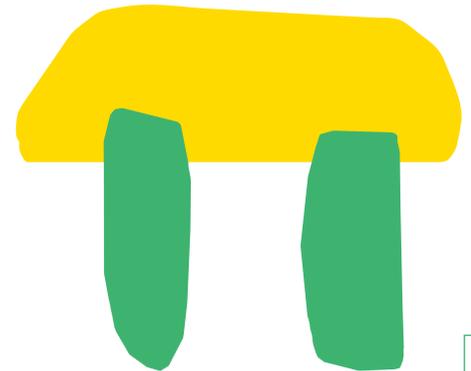
생각하기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일상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냈을까요?

청동기시대의 새로운 ‘도구와 기술 발명’은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물건 중, ‘청동기시대의 도구’와 닮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인돌, 공동체의 기억이 쌓인 돌

1 고인돌이란 무엇일까?

고인돌은 덮개돌 밑에 받침돌을 괴어 만든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자 기념물입니다. 지역마다 권돌, 권바우, 독바우, 고엔돌, 거북바위, 칠성바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2 고인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고인돌의 위치·형태·규모를 연구하면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매장문화와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고인돌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15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인돌은 주로 청동기시대인 기원전 13세기부터 9세기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다만 특이하게도 호남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청동기 문화가 오래 지속되어, 기원전 2세기까지도 고인돌을 계속 만드는 청동기문화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4 고인돌은 어떤 모습일까?

고인돌은 고임돌과 덮개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양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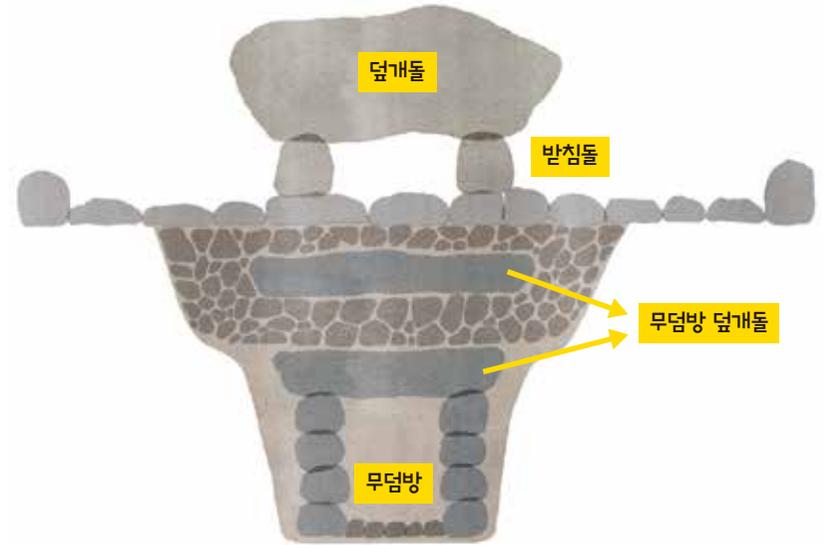
탁자식

바둑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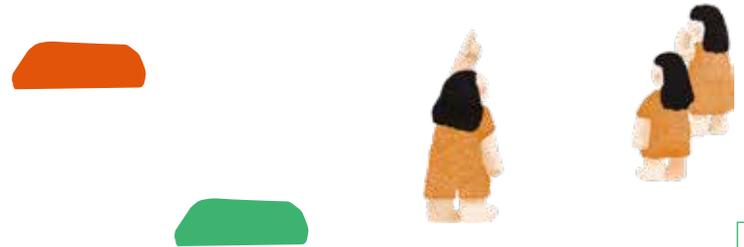
개석식

5 고인돌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땅을 파서 사람을 안치한 후 돌을 쌓아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개석을 놓습니다. 이후 흙을 채워 매장한 뒤 지면 위에 지석을 세운 다음, 마지막으로 덮개돌(상석)을 올려 고인돌을 완성합니다.



고인돌 모식도 (출처: 윤호필)



6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1. 땅을 파고 받침돌 세우기



2. 받침돌 주변에 흙을 쌓아 경사지게 하기



4. 덮개돌을 얹은 다음 흙을 치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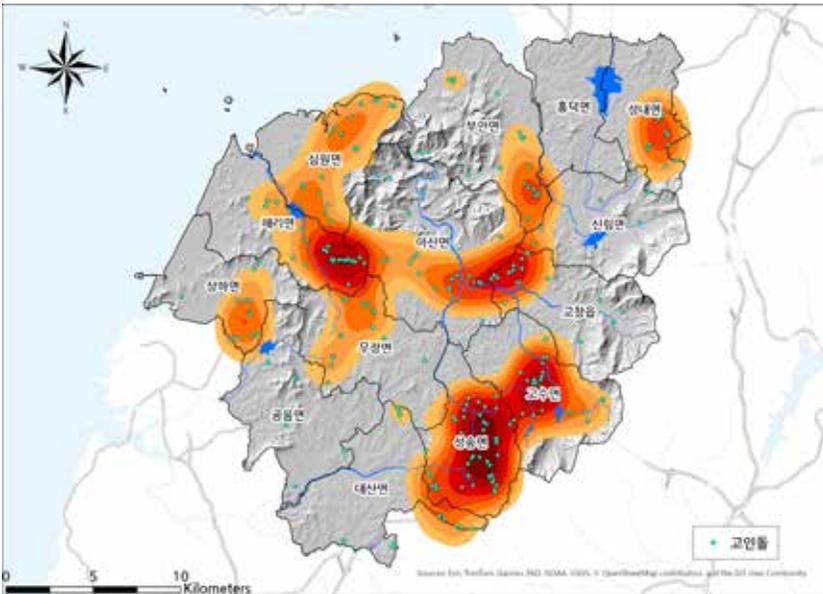
3. 통나무를 이용해 덮개돌을 끌어올리기

고창의 고인돌, 삶이 머문 자리

고창에는 약 1,748기의 고인돌이 모여 있습니다. 고창 고인돌은 성틀봉, 고산, 선운산 등 산지의 끝자락에 자리하며, 일부는 당시 사람들이 이동하고 모였던 옛 교통로 주변에도 분포합니다. 고인돌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 가까이 세워졌어요. 즉, 고인돌은 죽은 이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산 이들의 일상 공간이었죠. 그 속엔 '공동체의 기억', '자연과의 관계', '삶의 방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고창 고인돌군이 모여 있는 고창군 주요 산지

- 성틀봉: 죽림리 고인돌군
- 구황산: 암치리 고인돌군, 계당리 고인돌군, 향산리 고인돌군
- 고산: 상금리 고인돌군
- 선운산: 발원지 주변으로 고인돌 밀집



고창군의 고인돌 분포

고창의 고인돌은 밀집도가 높고,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도산리 고인돌
(탁자식)



덕암리 고인돌
(바둑판식)



군유리 고인돌
(개석식)



부곡리 고인돌
(탁자식)



향산리 고인돌
(바둑판식)



평지리 고인돌
(개석식)



생각하기

고인돌은 왜 산지와 가까운 곳에 세워졌을까요?

고인돌은 매우 무겁고 크기 때문에 공동체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만들 수 없었습니다. 고인돌을 세우는 작업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청동기시대의 바위그림, 돌 위에 새긴 예술

청동기시대 사람들에게 돌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땅의 뼈’이자 기운의 핵(核), 흙의 정(精)이 담긴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았고, 변하지 않는 돌 속에 자신보다 더 강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 생각과 믿음을 그림의 형태로 돌에 새기며 예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이러한 흔적을 ‘바위그림’, ‘성혈(性穴)’이라 부르며, 그 속에 담긴 당시 사람들의 삶과 신앙, 상상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 바위그림과 성혈

■ 바위그림

- 암각화 : 바위 표면에 새겨 만든 그림
- 암채화 : 바위에 색을 칠해 표현한 그림

■ 성혈 (性穴, 알구멍, cup-mark)

- 고인돌의 덮개돌이나 자연 암반에 새겨진 흔적
-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 철기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음

2 바위그림의 종류

- 사실적 표현 : 동물, 사람, 사냥 장면, 배 타는 모습, 돌검, 돌화살촉 등
- 기하학적 무늬 : 연속 마름모꼴, 동심원
- 기타 : 사람의 얼굴 또는 신상(神像)으로 추정되는 무늬, 다수의 성혈



생각하기

고인돌에 새겨진 그림에는 어떤 이야기나 믿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내가 돌에 새긴다면, 어떤 감정이나 메시지를 남기고 싶나요?

3 우리나라 고인돌에 남아있는 바위그림들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고인돌 암각화



함안군 도항리 고인돌 암각화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 고인돌 암각화



남원시 대곡리 고인돌 암각화



포항시 인비리 고인돌 암각화



여수시 오림동 고인돌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
 〈청동기시대 고인돌 암각화 체험 키트〉 안내서



체험 활동 소개

고인돌 위에 새긴 나만의 암각화는
 수천 년 전의 시간과 오늘의 나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청동기시대 고인돌 암각화 체험 키트: 손끝으로 만나는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사람이 되어보기' 방식으로 과거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의 사람을 상상하고, 손으로 돌을 느끼며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고, 그 의미를 스스로 새롭게 해석해보는 경험이 됩니다.

안내서를 통해 청동기시대의 삶과 고창 고인돌의 특징을 배우고, 고창의 대표 고인돌 '도산리 고인돌'을 본떠 만든 석고 모형물과 마주하는 순간부터 활동은 시작됩니다. 참여자는 손끝으로 돌의 질감을 느끼고, 새기고 싶은 이야기를 떠올린 뒤, 밑그림을 그리고 도구를 사용해 직접 암각화를 새겨봅니다. 작은 선과 점을 새길 때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 방식이 오늘의 나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무늬 위에 화선지를 얹어 탁본을 뜨며, 자신만의 암각화를 또 하나의 기록물로 남깁니다. 이 과정은 고인돌을 '감상하는 유산'에서 '만져보고 표현하는 유산'으로 확장하며, 과거의 감각과 오늘의 창작을 잇는 특별한 배움의 시간입니다.



구성품

- <청동기시대 고인돌 암각화 체험 키트> 안내서
- 고인돌 석고 조형물 : 도산리 고인돌 덮개돌 1개, 도산리 고인돌 받침돌 2개
- 시문 도구(무늬 새기기 도구) 1개
- 붓 1개
- 밀그림 및 탁본 도구 : 연필 1개, 화선지 2장

주의 사항

- 10세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해주세요.
- 시문 도구가 날카로우니 사용 시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작업해주세요.
- 작업 중 발생하는 석고 가루가 눈·입·코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장시간 사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안전하게 체험해주세요.
- 암각화를 새길 때 생긴 석고 가루는 붓을 사용해 부드럽게 털어내세요.
-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작업 공간을 정리해주세요.

체험 활동 순서

1 준비하기

- 바닥에 신문지나 작업 매트를 깔고, 키트의 모든 구성품을 꺼내 정리합니다.
- 구성품이 빠짐없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관찰하기

- 본 키트의 석고 조형물은 고창의 대표 고인돌인 '도산리 고인돌'을 3D 모델링하여 실제 형태에 가깝게 재현한 작품입니다.
- 덮개돌을 손끝으로 천천히 만지며, 돌의 질감·두께·모양을 차분히 느껴보세요.

3 상상하기

- 질문들을 참고하여 나만의 암각화 도안을 상상해보세요.

청동기시대에 살았다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람을 어떤 모양으로 남겼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자연의 모습 중 '영원히 새기고 싶은 장면'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를 도안으로 만든다면 어떤 형태일까요?
미래의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나의 마음을 어떤 도안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아래 칸에 나만의 암각화 도안을 직접 그려보세요.

상상이 어렵다면, 안내서 뒤편의 청동기시대 암각화·별자리 도안을 참고해보세요.

4 암각화 새기기

- 도안을 덮개돌 위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립니다.
- 밑그림을 따라 시문 도구를 사용해 천천히 암각화를 새깁니다.
- 새기는 동안 생기는 석고 가루는 붓으로 부드럽게 털어내세요.
- 서두르지 말고, 선사시대 사람의 마음으로 천천히, 조심스러운 손길로 새겨보세요.

5 탁본하기

- 탁본은 금속·기와·돌·나무 등 표면에 새겨진 문양을 종이에 베껴내는 전통적인 기록 방식입니다.
- 암각화 새기기가 끝나면, 덮개돌 위에 화선지를 올립니다.
- 화선지를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 덮개돌 표면에 밀착시킵니다.
- 연필로 부드럽게 문질러 문양을 화선지로 베껴내면 탁본이 완성됩니다.
- 암각화의 무늬가 더 잘 드러나도록, 윤곽선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칠해보세요.

6 고인돌 받침돌 붙이기

- 덮개돌 하단에 표시된 위치를 확인합니다.
- 덮개돌 하단에 표시된 위치와 모양대로 글루건이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받침돌 2개를 각각 붙입니다.

7 탁본하기

- 오늘 내가 새긴 암각화가 담고 있는 마음이나 의미를 적어보세요.
(예: ○○의 하늘, ○○의 노래, ○○의 시간)

- 오늘 내가 새긴 무늬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도 적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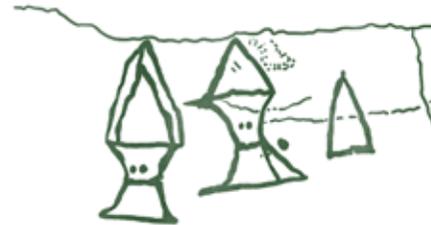
TIP! 석고 조형물에 아로마 오일을 뿌리면 향이 스며들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나만의 작품이 됩니다.

부록. 암각화 도안 예시

1 청동기시대 고인돌에 새겨진 암각화



동심원과 성별



간돌검 모양



간돌검과 사람모양



2 별자리

별자리 도안을 참고하되, 점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작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적절한 수의 점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물병자리 (1.20~2.18)



물고기자리 (2.19~3.20)



양자리 (3.21~4.19)



황소자리 (4.20~5.20)



쌍둥이자리 (5.21~6.21)



게자리 (6.22~7.22)



사자자리 (7.23~8.22)



처녀자리 (8.23~9.23)



천칭자리 (9.24~10.22)



전갈자리 (10.13~11.22)



사수자리 (11.23~12.24)



염소자리 (12.24~1.19)



발행처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발행일 2025년 12월

총괄기획 이문식 고창문화도시센터장

총괄운영 치유문화팀 (유정선 팀장, 이승우 사원, 이지연 PM)

기획제작 솔사람

디자인 김승후

삽화 백조은

문의 063)561-1110 gcc23.co.kr

© Copyright 2025. 솔사람.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는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고창문화관광재단과 솔사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